

'실체를 찾아서' 내춤의 화두죠

컴컴한 무대위를 밝히는 조그만 조명 아래 한 여인이 온 우주를 감싸 앉을 듯 골개 뻗은 손가락으로 둥근 원을 그려 놓는다. 그 원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실체를 찾아서' '나는 없어지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나와 너에서 벗어나자' ...

10여년 전부터 불교의 연기법과 기(氣)를 몸짓언어로 구사하고 있는 무용가 이영희(부안 경성대).

불발을 더욱 화사하게 하는 흰 목련같은 자태의 하얀 목련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나로 인해 결정되고, 나로 인해 새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절 의의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춤과 함께하는 내 생활이 더욱 여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터득한 삶의 맛을 털어 놓는다.



산문박의 禪

무용가 이영희 교수

인연법 알면서 삶 이해... 몸짓으로 일체무상 그려 "무대·아내·엄마·스승자리 모두가 수행처입니다"

이교수는 올 여름 부산 해변축제에 선보일 「만선이 사라지다」와 겨울쯤 무대에 올릴 「상이 없음」을 보드라는 작품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좌선에 든다. 그리고는 관안리 바닷가를 거닐며 행선(行禪)을 한다. 아침바다의 싱그러움 정취에서 이교수는 새로운 작품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만의 몸짓으로 형상화되어 타인에게 보여진다.

고요속 마음 다스리기

고요속의 마음 다스리기를 즐기는 이교수는 시간이 날때면 이곳저곳 선방을 찾기도 한다.

"여느 때처럼 무상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육신이 의형적으로 모든 모습을 갖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정육점에 걸린 소 뼈다귀로 걸쳐져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또 한번의 '무상'을 인식하게 됐죠."

이교수는 지난 겨울 계룡산 대자암에서 동안을 보내던 중에 경엄한 내음을 「상이 없음」을 보드라는 작품으로 구상하고 있다.

올 겨울쯤 선보이게 될 이 작품은 그야말로 춤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한 작품으로 연출할 계획. 53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대개의 사람들은 '춤 아름답고 미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교수는 '무용은 아름답고 이쁜 동작만으로 꾸민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에서 벗어나 인간의 가치, 사회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춤이 될 때 예술로서 승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교수의 춤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이며 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해 집착과 애착에서 해방되어 육망 앞에서 삶의 궁극적 자유를 찾으려는 선지(禪心)를 지니고 있다.

이교수는 어릴적 학교 학예회에 자주 발탁된 것이 인연이 돼 50평생 춤을 쳤다. 그가 무용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는 불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단지 불교집단의 가족이었을 뿐.

그렇게 신앙, 즉 불교에 대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가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외로움이라는 커다란 고뇌의 덩어리를 떠맡게 되면서 부터는 달랐다. 그래서 스스로 초발심이 일어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는 '예술의 귀결점이 무엇이고, 그에게 있어 무용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방향조차 쉽게 설정하지 못 했었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법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실체를 가지지 않는 무상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올바른 삶의 가치, 자연관,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할 줄 알게 됐을 때 그는 무용가로서 새로운 자리에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춤은 아무런 고통이 와 닿지 않는 삶, 완전한 자유의 삶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몸짓이다. 그 몸짓에서 표출되는 힘은 우리를 때부 깊숙히 억누르고 잠재우고 있는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도전적 심리를 들춰내고도 남는다.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완전한 자유의 삶 추구

무용에서의 그의 시간은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한 선승이 '마음 비우기'의 철저한 싸움을 하는 시간과도 같다. "참선수행에 말이 필요치 않듯, 일체 무상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의 무용에서도 그다지 많은 움직임은 필요하지 않지요."

춤 동작의 축소와 단순화는 바로 집착을 끊으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바로 그 집착 끊기의 용맹정진이 이교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몸짓언어를 의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미안미에서 수행중인 평생 해성스님은 이교수에게 있어 정신적 외지적인 동시에 무대에 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일동력

이 되기도 한다.

부산 서울을 오가며 아내로, 엄마로, 스승으로 1인 다역을 해내야 하는 이교수는 "무용이 곧 내 삶에 수행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곧 수행인 것이죠. 이 어디 한곳이 수행처 아닌 곳이 없고, 매 순간 수행정진 중이 아닌 때가 없기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험경하거나 숨가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수행자로서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에 대한 만족은 곧 그의 예술세계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작품에 임하는 그가 총사위 하나하나에 빠져 들어 그와 춤이 혼연일체가 된 모습에서 그 힘은 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교수는 "춤 추며 몸짓을 잊어 버리고, 몸을 움직이되 춤을 잊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무대위의 자신과 객석의 관중이 따로 있지 않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인원을 갖고 있다.

지리에서 일어나며 "약한자, 강한자, 고통에 허덕이는 자, 행복을 즐기는 자 모두 내 마음 스스로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라고 미지막 인사를 던지는 이교수에게는 신라 범종에 그려진 비천상 속 천녀들의 부드러운 율동이 느껴졌다.

(도필선 기자)



신탁·이기선

아집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어린이는 잡으면 놓지 않으려 한다. 제것을 놓치면 그만큼 먹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엇이든 잡기만 잡으면 그것을 갖고 놀러하고 먹으려 한다. 사실 잡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아장아장 뒤편 따라 가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준다.

그러나 그 잡는 것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잡들이를 당한다면 성가시고 귀찮을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만큼 내 앞거나, 저만치 떨어져서 놀아라고 타일러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칭얼거리면서 매달리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꼭 떼어 놓고 일을 하여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조용히 한갓지게 외공으로 들어 앉아서 하여야 하는데 주위에서 볼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사람은 어떤 때는 고요하고 조용히 있고 싶다. 왜냐하면 일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잡음보다 조용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조용은 해방이다. 매이지 않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간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 말도 터놓고, 마음놓고 하여야만 제 뜻을 놓치지 않고 다 전할 수 있다. 어디에 억눌려 말하거나 붙잡혀서 말하면 참 뜻을 전할 수 없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

제일 좋은 것이 방하착(放下着)이다. 방하착보다 넓은 공간이 없다. 우리들은 협소한 마음공간에 온갖 근심, 걱정, 번민을 싸잡아 풀으려고 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숨통 막히는 일인가. 그러므로 선 사들은 방하착하라고 말을 하고 방을 친다. 그런데 중생들은 할할 때 놀라고, 방을 친 때 겁을 먹는다. 영컨 마음이 있기에 그만한 소리에 간이 떨리고 기가 질려서 말

론이 막히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공부되고 마음이 트인 사람은 그러한 할이나 방에도 텅 비어버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지리가 무엇인가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자리다. 어디에도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24

應無所住

에, 피땀에 옮겨 와야 한다. 나이제는 불명어를 안고 내려 왔다고 외쳤다. 짜리투스 트라의 노래이다.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생명을 갈구한 것이 역역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하는 절대 절명의 여래장의 소식도 전해줄 것이다. 무명으로 있으면 져터미이고 불명어로 살면 여래장이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속박이나 결박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자유인

응무소주, 이것은 져터미를 박치고 나온 사람이 안주 할 살면 여래장이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속박이나 결박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무명속에서 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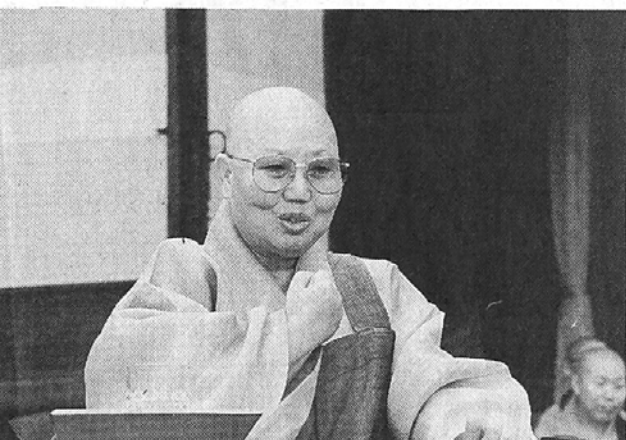
래의 씨앗을 성장시켜라 일러주

서고 있다. 먹는 마음들이 마음 내어라. 그냥 자유를 성속시켜라. 억지를 쓰지 말라. 자신에게 굴레를 씌워 결박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본래부터 해방자 자유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하고 이그는 자가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아집의 쇠고랑을 만들고 삼독의 창고로 만들어 그 속에서 소일하고 있는 져터미의 중생이 아닌가.

이제 인간은 불명어리, 부처님어리인 불성(佛性)을 자재롭게 하여야 한다. 그 길이 여래를 여는 길이고 불명어리를 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어린아이기 어머니 치마자락을 놓아야 아이다 어미도 자유롭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일체 아집의 알갱이를 비워버려야만이 집착 없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인격체가 될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비리필이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준공법회



일시: 불기 2539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법당

마음의 등불을 밝힐 도량이 신축되어 대행스님을 모시고 준공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뜻깊은 법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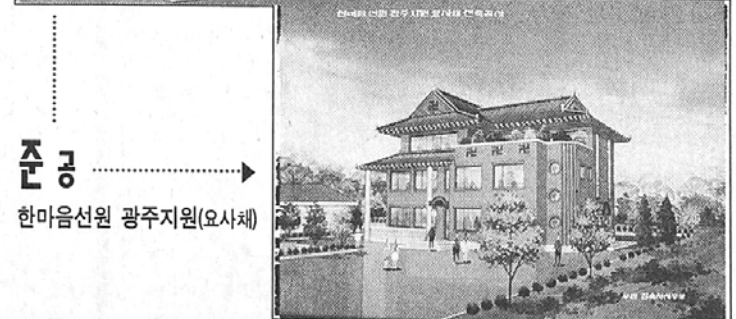
지원장 헤울
신도회장 김희남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전화: (062) 373-8801~3, FAX (062) 373-0174



준공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법당



준공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오사체)

